



월드컵 소식

베어백 “한국축구 가능성 열려 있다”

네덜란드 방송 인터뷰

필 베어백(50) 축구대표팀 신임 감독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베어백 감독은 2일 네덜란드 방송 'NOS 스포츠 스튜디오'에 출연해 “한국에는 재능있는 젊은 선수가 많고 기존 대표 선수들도 투지와 기량이 좋아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베어백 감독은 K-리그 수준을 묻는 질문에 “K-리그 수준은 유럽 빅리그와 차이가 있다. K-리그 팀의 수준은 현재 네덜란드 프로축구 2부 리그와 비슷하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반면 대표팀에 대해서는 “유럽 클럽팀과 대등하다고 생각되며 이번 독일월드컵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베어백 감독은 또 “나는 31세 때 네덜란드 프로축구 리그 사상 최연소 감독이 됐고 지난 20년 동안 코치와 감독으로 활동했다. 최연소 감독 부임 당시 팀의 몇몇

선수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기도 했다”며 자신의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공언해 온 그는 특히 프로그램 사회자 및 패널들에 ‘오른쪽’, ‘왼쪽’, ‘진진’, ‘압박 축구’ 등의 한국말을 발음하며 그 뜻을 소개해 ‘지한파(知韓派)임을 과시하기도 했다. 베어백 감독은 디 아드보카트 감독에 이어 한국 대표팀 새 사령탑에 부임한 뒤 지난달 29일 휴가차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왔다.

“남미 동반 탈락 공격축구 실종 때문”

로이터 통신 분석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신들의 장점인 공격 본능을 저버린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독일월드컵축구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졌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나란히 8강에서 탈락한 원인을 ‘스스로 공격축구를 포기한 사령탑의 용병술’ 탓으로 돌린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일 브라질이 프랑스에

0-1로 패한 직후 카를루스 아우베르투 파헤이라 브라질 감독의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전략을 꼬집었다. 브라질은 이른바 ‘매직 4중주’로 불리는 호나우두(레알 마드리드), 호나우지뉴(FC바르셀로나), 아드리아누(인터밀란), 카카(AC밀란)로 막강한 공격진을 구축하고 있는데도 프랑스와 8강전에서는 아드리아누를 빼고 미드필더 주니뉴 페르남부카누(리옹)를 선발로 내보냈다. 로이터는 선발 라인업으로 ‘안전한 진용’을 짰 파헤이라 감독이 선제골을 내주

자 뒤늦게 아드리아누, 시시뉴(레알 마드리드), 호비뉴(레알 마드리드)를 투입해 공격적인 진용을 가동했는데 그 때부터 마지막 11분 간에 그나마 브라질다운 플레이를 펼쳤다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의 호세 페케르만 감독도 전날 열린 독일과 8강전에서 비록 승부차기 끝에 눈물을 흘리기기는 했지만 후반 1-0으로 리드하고 있을 때 수세적인 교체 전략을 쓴 게 결과적으로 패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골든슈’ 클로제 유력... 앙리 맹추격

월드컵 홈피 투표 1·2위

독일월드컵축구 홈페이지의 골든슈(득점상) 예상 투표 결과는 2일 현재(이하 한국시간) ‘전차군단의 골든 헤드’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가 59%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브라질과 8강에서 3호골을 뽑아낸 티에리 앙리(프랑스)로 21%.

그만큼 이번 대회 골든슈 각축에서는 클로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사실이다. 클로제는 아르헨티나와 8강에서 극적인 동점골로 5호골을 뽑았다. 3골을 기록한 2위 그룹과 두 골 차로 격차를 벌인 상태. 게다가 공동 2위 7명 가운데 같은 전차군단의 신예 루카스 포돌스키(독일)와 앙리를 제외하면 5명은 이미 떨어져 나갔다. 월드컵 통산 최다득점 기록(15골)을 세운 호나우두(브라질)를 비롯해 에르난 크

레스포, 막시 로드리게스(이상 아르헨티나), 다비드 비야, 페르난도 토레스(이상 스페인)가 짐을 싸 더 이상 경쟁에 나설 수 없다. 클로제는 2002년 한일월드컵 5골에다 이번 대회 5골을 더해 헬무트 란, 게르트 뮐러, 위르겐 클린스만에 이어 네 번째로 월드컵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독일 선수가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포르투갈 히카르두 야신상 후보 부상

승부차기 3개 막아내

포르투갈 축구대표팀의 수문장 히카르두(스포르팅 리스본)가 2006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강력한 야신상 후보로 떠올랐다. 히카르두는 2일 오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8강전 승부차기에서 상대 선수의 킥을 무려 3개나 선방해 3-1 승리로 팀의 4강행을 이끌었다. 이날 승부차기에서 히카르두는 볼을 차기 전 상대 킥의 움직임에 따라 몸을 날리는 골키퍼의 동물적 감각이 뭔지를 그대로 보여줬다. 히카르두는 잉글랜드의 첫번째 킥인 프랭크 램퍼드가 왼쪽으로 휘어찬 볼을 몸을 날리며 막아낸 뒤 두번째 오인 하그리브스의 킥에서도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몸을 날렸지만 볼은 아깝게 손에 맞고도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 잉글랜드의 세번째, 네번째 킥이 찬 볼은 히카르두의 손아귀를



포르투갈의 거미손 히카르두(왼쪽)가 2일 오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2006 독일월드컵 8강전 승부차기에서 스티븐 제라드의 공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절대로 벗어나지 못했다. 또 이번 월드컵에서 승부차기는 모두 3차례 있었지만 골키퍼 선방이 3번이나 나온 것은 히카르두가 처음이다.

“루니에 퇴장 이유 불분명하다”

엘리손도 또 오심 논란

“루니에게 레드카드를 빼든 이유가 불분명하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2일(이하 한국시간) 독일월드컵축구 8강 잉글랜드와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오사시오 엘리손도 주심이 후반 17분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이유가 석연찮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엘리손도 심판은 지난달 24일 하노버에서 열린 한국과 스위스의 G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주심을 맡았고 스위스 알렉산더 프라이의 두번째 골 상황에서 오프사이드 오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로이터는 “심판은 특정 선수를 퇴장시킬 때 이유를 공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퇴장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엘리손도 심판이 루니를 퇴장시킨 이유는 국제축구연맹(FIFA)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통신은 주심이 루니를 퇴장시킨 이유가 포르투갈 수비수 히카르두 카르발류의 급수를 뺐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심판에게 달려가 항의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밀어버린 것 때문인지 설명이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성미가 2일 열린 US여자오픈 2라운드 17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위성미는 볼이 벙커에 고인 물에 빠져 드롭한 후 샷을 했으나 다시 벙커에 빠지는 바람에 이 홀에서 더블보기를 기록했다. /AP=연합뉴스

안시현·위성미 우승 넘본다

선두 소렌스탐·허스트와 2타차 공동 3위

LPGA US여자오픈 2R

박세리는 3타차 공동 6위

안시현(22)과 위성미(17·나이지리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 2라운드에서 선두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2타차로 추격했다. 안시현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도아일랜드주 뉴포트의 뉴포트골프장(파71·6천564야드)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버디 3개와 보기 3개로 이븐파 71타를 쳐 함께 이븐파 142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소렌스탐이 함께 2언더파 140타로 팻 허스트(미국)와 공동 선두. 안시현은 이날 드라이브샷 거리(평균 222.5야드)를 육박내지 않는 대신 그린 적중률(86%)을 높이는 전략을 내세워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했다. 위성미와 재미교포 제인 박도 공동 3위 그룹에 합류했다. 안시현은 16번홀까지 2언더파를 달리다 17번홀(파3)에서 티샷이 벗어났는데 벙커에 빠지면서 더블보기를 범한 것이 아쉬웠다. 위성미는 2라운드까지 평균 거리 256야드의 드라이브샷을 시원하게 때렸고, 페어웨

이 안착률과 그린 적중률은 60%대로 평범한 수준이었으나 다행히 라운드당 퍼트수가 28개로 양호했다. 소렌스탐이 오전조에 속해 비교적 잔잔한 날씨속에 편안하게 경기를 한 것과 달리 위성미는 오후들어 갑자기 거세진 바람속에서 라운드를 돌았으나 ‘선방’했다. 작년 US여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 챔피언인 제인 박은 이날 2타를 잃었지만 선두와 2타차로 유지하면서 우승까지 남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완전한 부활과 함께 2개 메이저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박세리(29·CJ)는 첫날 공동 선두였으나 이날은 버디 1개와 보기 4개로 3타를 잃어 함께 1오버파 143타로 선두와 3타차 공동 6위로 주춤했다. 박세리는 이날 드라이브샷과 아이언샷이 모두 안정적이었으나 퍼트수가 33개로 많은 것이 흠이었다. 그러나 마지막날 36홀을 모두 처리야 하기 때문에 3타차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 풍부한 경험을 살리고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정상 정복은 가능할 전망이다. 통산 3승과 함께 메이저 2승을 노리는 장정(26·기업은행)도 이날 이븐파를 쳐 함께 1오버파로 공동 6위까지 뛰어올랐고, 김영(25·신세계)은 2타를 줄여 함께 2오버파

144타로 공동 11위까지 도약했다. 이지영(21·하이마트)은 4타를 잃어 함께 4오버파 146타로 공동 20위까지 처졌고, 김미현(29·KTF)은 함께 5오버파 147타로 공동 26위로 밀렸다. 한희원(28·힐라코리아)과 김주연(25·KTF) 등은 컷오프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PGA 뷰익챔피언십 3R

최경주 208타 공동 37위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뷰익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공동 37위까지 상승했다. 최경주는 2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TPC리버하일랜드골프장(파70·6천820야드)에서 열린 대회 셋째날 버디 4개와 보기 3개로 1타를 줄여 함께 2언더파 208타를 달렸다. 선두는 이날 7언더파의 데일리베스트샷을 때려 함께 11언더파 199타의 성적표를 적어낸 J.J.헨리(미국).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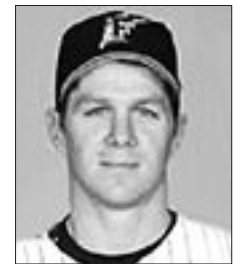
이승엽 26호 홈런포

日 무대 3시즌만에 70홈런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시즌 26호이자 일본무대 70호 홈런을 날렸다. 이승엽은 2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와 홋카이도 1투수 겸 4번 타자로 나와 0-0으로 맞선 2회말 상대

좌완 선발 이가와 게이로부터 좌측 펜스를 넘는 솔로홈런을 날렸다. 이승엽은 이로써 지난 달 28일 요코하마 전 이후 나흘만에 홈런포를 다시 가동했고 일본 프로야구에 입문 한 지 3시즌만에 통산 70홈런 고지에 올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새 용병 스캇 시블 영입



KIA 타이거즈는 “최근 퇴출한 용병 타자 마이크 서브네(30)의 대체 선수로 메이저 리그 출신의 스캇 시블(31)과 계약금 5만달러, 연봉 16만달러에 입단 계약했다”고 2일 밝혔다. 193cm, 90kg의 스캇 시블은 내야 전 포지션을 맡을 수 있고 정확성과 장타력을 두루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으로 2001년 트리플 A 콜럼버스(뉴욕 양키스 산하)에서 프로에 데뷔한 뒤 지난해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59경기에 출장해 타율 0.219, 10타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트리플A 앨버커키(플로리다 산하) 소속으로 71경기에 나와 홈런 17개, 타율 0.314의 활약을 펼쳤다. 스캇 시블은 오는 10일께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일(월) ▲메이저리그(뉴욕M-뉴욕Y)(08 : 50·X-sports) ▲제6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13 : 00·KBS SKY SPORTS)

한국, 日 꺾고 통합 우승

아시아 남자배구 최강전

한국이 2006 아시아 남자배구 최강전 1, 2차 대회를 모두 휩쓸었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2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차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문성민(경기대)과 김학민(경희대)의 활약에 힘입어 일본을 3-1(25-23 23-25 25-19 25-17)로 제압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에서 벌어진 1차 대회에 이어 2차 대회에서도 3전 전승으로 1위에 오르며 3년 연속 통합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김호철 감독은 12월 카타르 도하아시아게임을 앞두고 박철우, 이선규(이상 현대캐피탈), 문성민, 김학민, 김요한(인하대) 등 젊은 선수들을 잘 지휘해 국가대표팀 감독 데

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한국이 높은 블로킹과 막강 화력을 앞세워 조직력이 뛰어난 일본을 압도한 한편이었다. 한국은 1세트 중반부터 일본의 강서브에 리시브가 흔들려 고전하다가 22-22 동점에서 문성민의 연속 백어택 2개로 24-23 세트포인트를 만든 뒤 장영기(현대캐피탈)의 스파이크가 성공해 힘겹게 기선을 잡았다. 2세트를 뺀 한국은 3세트에서 높이를 앞세워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점 앞선 8-7에서 센터 하경민(현대캐피탈)의 블로킹 득점 2개와 송국, 장영기의 스파이크로 16-10으로 말차감치 달아났고 24-19에서 문성민의 가로막기가 성공해 3세트를 따냈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4세트 마저 따내 승부를 마무리지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